<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94 2026년 01월호

K-water Monthly Magazine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94
01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리듬

# RISE

## THEME 1

# 일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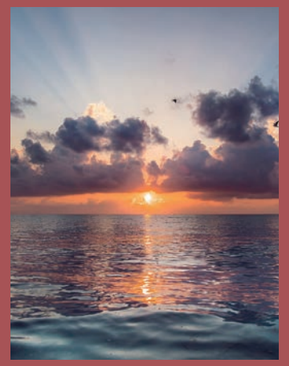
1월호의 키워드는 ‘Rise’입니다.
여러분은 ‘Rise’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일출’입니다. ‘일출’이란 떠오르는 빛에 우리의 희망과
바람을 기대어 보는 마음입니다. 2026년 첫 빛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일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THEME 2

# 상승

두 번째 테마는 ‘상승’입니다.
‘상승’이란 어제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거침없이 도약할 2026년,
우리 앞에 펼쳐질 기분 좋은 변화와 상승의 기운을 전합니다.

# 일출



**06. 신년사**

**08. 월간 수토픽**
지니야,
내 소원은 말이야!

**10. Gallery**
해야 해야 솟아라

**14. Theme Road**
동해에서 만나는
일출과 상승의 기운

**20. Travel Guide**
신년의 소원을 담은
해돋이 명소

**22. Voice on Road**
동해의 미식을 올리는 시간들
이병옥 셰프

**26. The kit**
일출 원정대의
완벽한 방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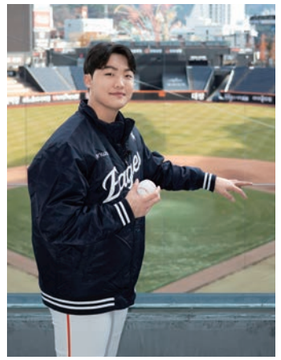
**28. Taste Note**
새해 식탁을 채우는
세계 요리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6년 1월 2일 | **통권** 694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 상승



**30. Theme Prism**
나를 끌어올린
Rise한 순간

**32. Opinion**
아침 7시,
모닝 레이브가 그리는 상승형 웰니스

**34. Talk with**
한화이글스를 상승세로 쏘아올린 루키
정우주 선수

**38. 수타벅스가 간다**
가장 크고 가장 바쁜데, 분위기는 상승세
경기동남권지사

**42. Water & Tech**
재생에너지 전환의 해답
가상발전소

**46. Light on**
바닷물을 담수로,
새로운 물길의 시작

**48. Newsroom**

**52. Water Lounge**
서해의 빛을 향해 오르는 사찰
보문사

**56. Monthly Issue**
티나강을 비추는 한국의 작은 불빛

**58. Water Tales**
영혼을 씻는 강,
세상을 품은 여신 강가

**60. #알고리즘**

**62.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 사랑하는 K-water 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K-water의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설렘을 느낍니다. 역동적인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공사가 더 높이 도약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성취와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AI 물관리 세계 1위를 비전으로 미래 전략을 더욱 선명히 다듬었고, 안전 문화와 AI 전환을 두 축으로 삼아 조직의 체질을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사 최초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국민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기업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올해에는 그간 다져온 기본을 바탕으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은 엄중하지만, 반드시 완수해야만 합니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첨단산업을 위한 물길을 만들며, 물 에너지로 국가 전략과제를 지원하는 것.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기후테크 산업을 선점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일은 오직 우리만이 완수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토마처럼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2026년은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여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올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네 가지 이정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기업 책무를 다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듭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K-water의 존재 이유입니다. AI 기반 댐 운영 예측과 위성 기술의 융합으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댐 운영을 자율 지능형 수준으로 끌어올려, 빈틈없는 기후안전망을 신속히 구축합시다. 안정적인 물그릇 확보는 국가와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하수저류댐, 시설 간 연계, 발전·농업용 댐의 다목적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합시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의 워터 포지티브 협력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갑시다. 이는 미래 물 부족에 대응하는 강력한 해법이자 상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댐 상류 오염원 통합관리를 비롯해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도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청렴과 안전을 우리의 고유 브랜드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기점으로 청렴을 대표적인 신뢰 자산으로 만들어갑시다. 피지컬 AI를 전면 도입하여 위험작업을 대체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적인 보장과 안전점검·교육 내실화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합시다. 이와 함께 5년 연속 ESG 경영 우수등급(AA)의 쾌거도 이루어낼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둘째, 국정과제인 'K-AI·에너지 고속도로'를 선도합시다.**

올해는 'K-water AX(AI Transformation) 비전 2030'을 구현하는 원년입니다. 모든 부문에서 AI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AI 정수장의 국제 표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와 데이터 스페이스 등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의 AI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립시다. 산·학·연 협력과 국가과제 참여를 통한 물 특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AI가 기술의 표준이 되는 시대에도 사람의 전문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놓친 복잡한 현장의 맥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AI와 직원의 전문성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도 주요 사명입니다. 수상태양광과 양수발전, 수열, 그린수소 등 우리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결집하여 국가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을 위한 듬직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등 파급력이 큰 조력발전 사업은 기관 간 협업의 선도자가 되어 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회복력 있는 지방시대'와 '실용적인 산업지원'의 실천입니다.**

물에 담긴 풍부한 환경 가치는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댐 주변 지역의 햇빛소득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이 자생하는 상생 모델을 창출하고, 로컬 브랜딩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물산업, 친환경 등 다양한 역량을 융합하여 순환과 회복력이 강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완성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펀드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속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에너지 솔루션' 제공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 고품질 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초순수 첫 사업을 기반으로 하이테크 수처리 분야의 다음 단계를 열어 갑시다. 또한 직접전력거래(PPA) 공급망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RE100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리더십과 첨단기술 패키지'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이끕시다.**

선도적인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시아물위원회(AWC)를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민관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호라이즌 유럽 등 세계 최고 수준의 R&D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술이 곧 글로벌 표준임을 입증합시다.

또한, 물관리 전반의 운영 역량과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물 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기업들과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K-물관리 동반성장 생태계'를 완성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K-water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을 때 K-water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순간에도 현장과 해외 각지에서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 증명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과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생의 노사 문화를 이끄는 박기찬 위원장님과 노동조합 여러분, 공정 경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삼규 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두터운 신뢰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혁신은 글로벌 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끌어 갈 동력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함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리는 비전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1. 2.
**사장 윤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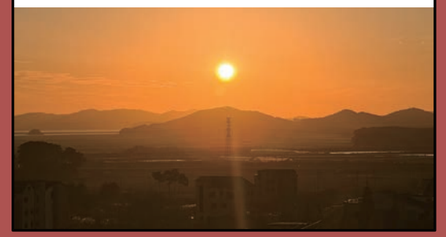
글. 편집실 사진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 지니야, 내 소원은 말이야!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볼까?”
웃음 섞인 다짐과 솔직한
소망들로 시작하는 2026.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

사진 속 해처럼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꿈꿉니다. 거창하진 않아도, 작은 시작을 꾸준히 이어가며 ‘어제의 나’보다 한 단계 성장한 2026년을 만들고 싶습니다.

**위남국 |** 대산산업용수관리단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잘 챙기고, 저부터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로만 ‘운동해야지’ 하지 않는 한 해가 목표입니다.

**최지훈 |** 수자원개발처

특별한 바람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고,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새해 소망입니다.

**오승호 |** 아산권지사

둘째를 낳고 싶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요즘 부쩍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가족 수를 늘려 아이의 웃음도 늘리고, 저출산 시대 국익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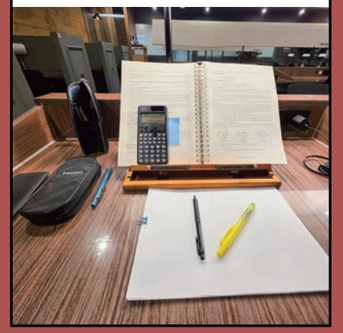
**고영권 |** 구미사업단

신입사원답게 공사, 현장, 계약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하고 숙지해 “이건 송승우에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말을 듣는 게 2026년의 소망입니다.
(일단 목표는 거기까지!)

**송승우 |** 기반시설사업단

올해는 꼭 진급해서 대한민국의 수자원을 책임지는 K-water에서 더 쓰임새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승현 |** 주암댐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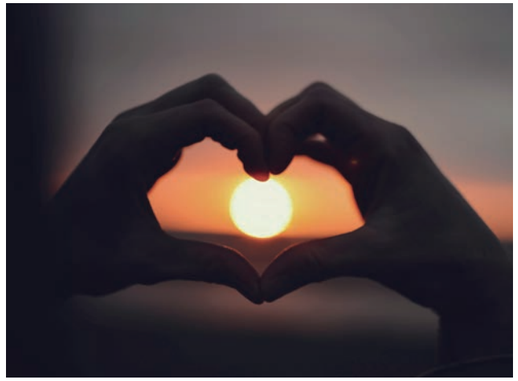
2026년은 첫째가 유치원,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해입니다. 벌써부터 감동의 도가니가 몰려오네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저부터 몸과 마음을 잘 챙기려 합니다. 칼바람 속에서도 눈사람과 웃는 아이들처럼, 힘든 순간에도 긍정 마인드로 보내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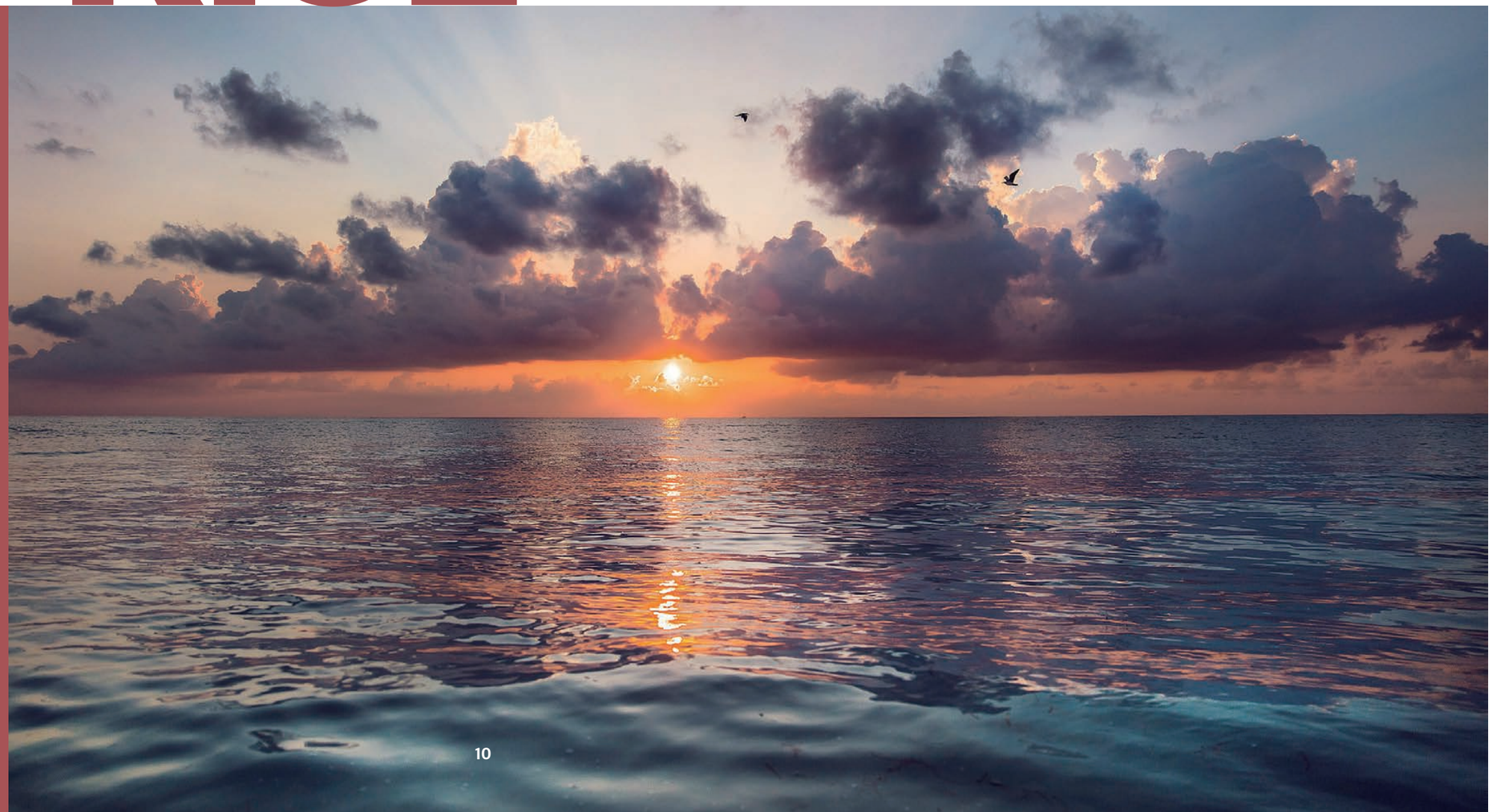
**김재영 |** 충주수도지사

한동안 손을 놓았던 기타를 다시 꾸준히 치고 싶습니다. 바빠서 잠시 미뤄뒀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2026년엔 다시 튜닝해 볼 생각입니다.

**박진범 |** 제주지역협력본부

# 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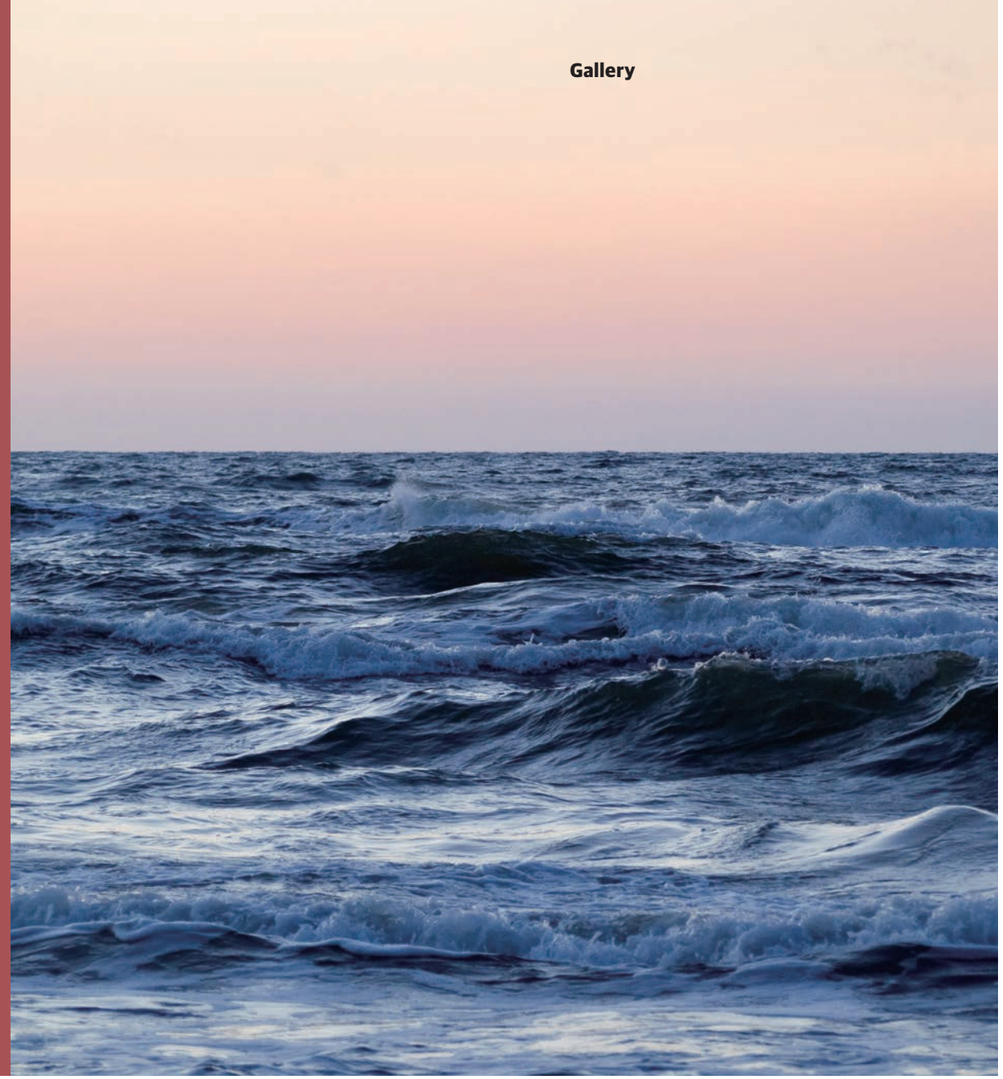




## 해야 해야 솟아라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태양은 늘 같은 자리에서 떠오르지만
그 빛이 남기는 의미는 매일 다르게 스며듭니다.
오늘의 빛은 어제와 다르고,
그날의 마음이 달라지면 빛도 새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는 목표를 비추는 길잡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걱정을 씻어내는 빛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작은 희망을 켜주는 스위치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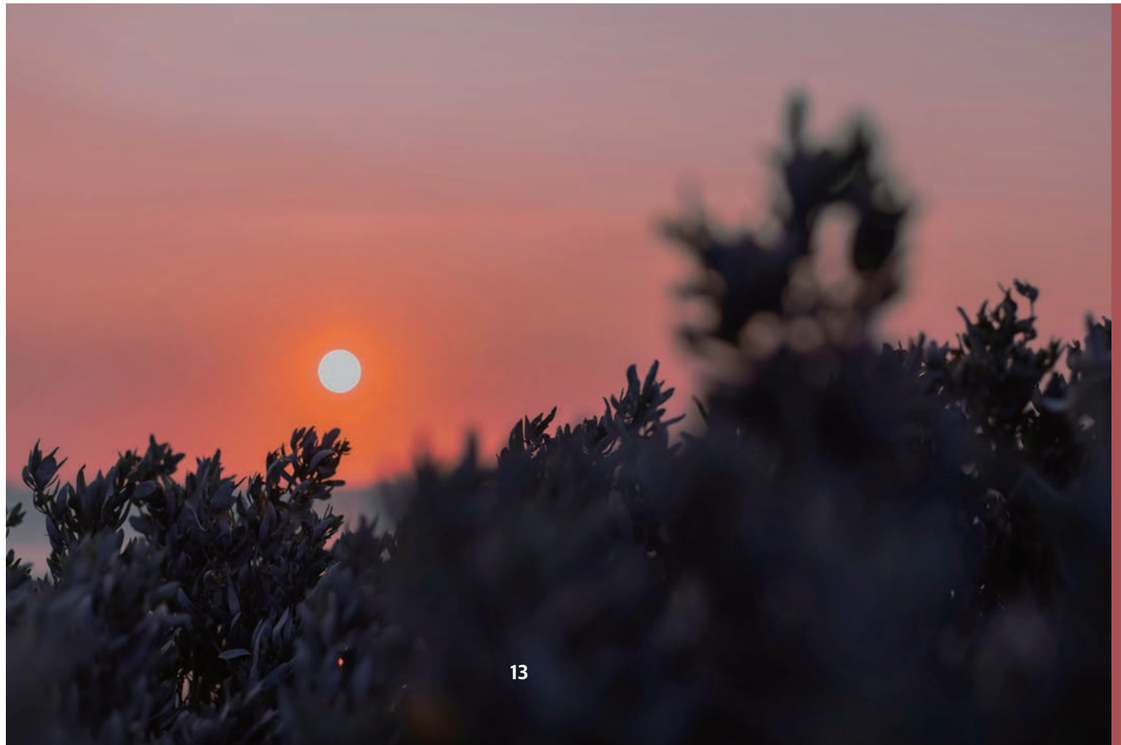


# The Red Sun Rises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가장 추운 시간에도 산을 오르고,
바람이 매서운 바닷가에 서서
붉은 태양이 금빛으로 번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기다립니다.

온몸으로 버터낸 시간 끝에 마주한 태양은
그 어떤 날보다 설레고,
어둠 끝에서 만나는 위로처럼
더없이 반가운 빛을 비춥니다.

## 오늘 당신은 어떤 일출을 만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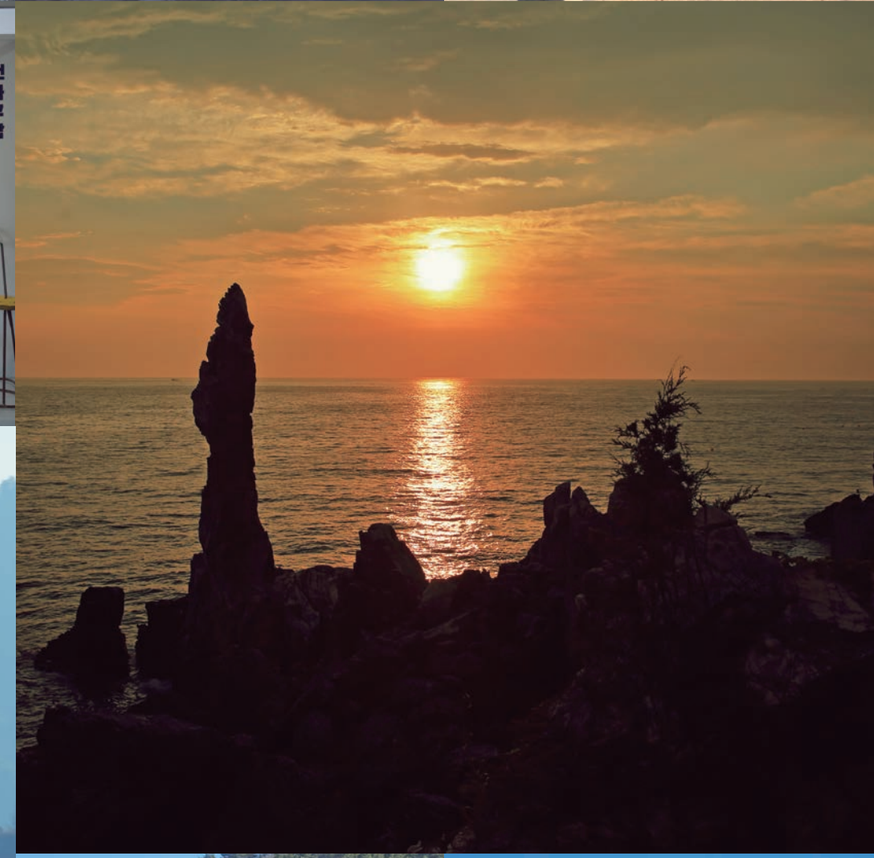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새해의 첫 아침, 동해의 바다는 언제나 가장 먼저 빛난다. 기암괴석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은 추암해변에서 장엄한 장면을 만들고, 파도와 바람은 한 해의 각오를 단단히 다진다. 삶의 흔적이 골목마다 남아 있는 묵호진동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다와 맞닿아 흐르고, 폐광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난 무릉별유천지는 멈췄던 시간을 다시 상승시킨다. 해와 사람, 그리고 공간이 함께 오르는 동해의 새해 풍경을 따라간다.

# 동해 에서

## 만나는 일출과 상승의 기운



## 태양과 기암괴석의 향연,
## 추암해변에서 맞이하는 장엄한 새해

동해시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추암해변은 예로부터 '해금강'이라 불리며 영동 지방의 절경으로 손꼽혔다. 한때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 화면으로도 유명해 국민적인 일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 덕분에 매년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한 수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는다. 추암(錐岩)은 '송곳바위'라는 뜻으로, 그 이름처럼 바다에서 뾰족하게 솟아오른 기암괴석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촛대바위는 추암해변의 주인공이다. 높이 약 20m에 달하는 이 기암은 주변의 거친 파도와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이다. 전설에 따르면 한 남자가 소실을 얻자 본처가 질투 끝에 바다에 몸을 던졌고, 그 후 촛대바위가 솟아났다고 전한다.

일출 시각에 맞춰 해변이나 전망대에 자리 잡으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촛대바위 사이를 통과하는 장엄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는 사람들로 전망대는 발 디딜 틈이 없다. 북적이는 사람들을 피해 좀 더 호젓하게 일출을 감상하고 싶다면 추암해변에서 바라보는 형제바위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넘실거리는 파도와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물거품이 백사장을 뒤덮고 그 너머에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른다. 일출의 감동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상승'의 기운으로 가슴에 담긴다.

### 추암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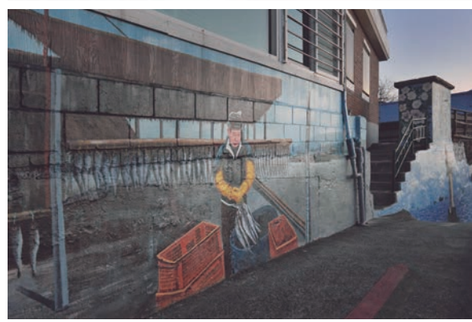
A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촛대바위길 28
T 033-530-2801

### 묵호진동 논골담길

A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논골1길 2
T 033-530-2231

추암촛대바위출렁다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길이 72m, 폭 2.5m 규모의 이 다리는 해상 보행교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다리 위에서 발아래로 철썩이는 파도의 역동적인 모습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출렁다리 끝은 추암 조각공원으로 이어져 있어, 다양한 조형물과 함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공원을 따라 걷다 보면 해암정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삼척 심씨의 시조인 심동로가 지었다고 전한다. 추암해변은 주차료와 입장료가 모두 무료이다.



## 삶의 이야기와 바람이 머무는 곳,
## 묵호진동에서 느끼는 희망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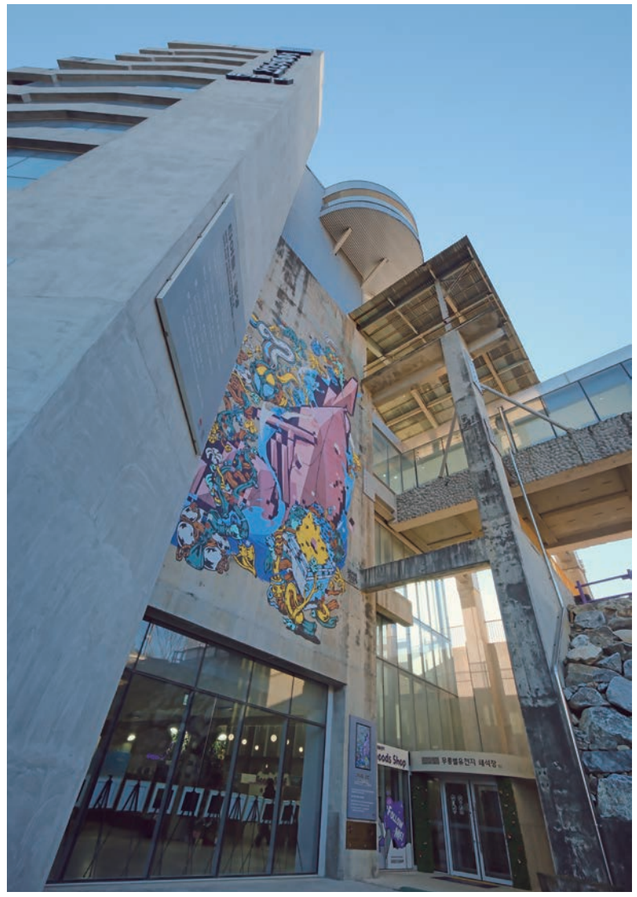
묵호항은 1941년 개항된 이래, 한때 동해안 최대의 무역항이자 어항으로 명성을 떨쳤다. 삼척에서 생산된 석탄과 양양의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산업항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며, 밤바다를 가득 수놓은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이 폭죽처럼 화려하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항구 사람들의 고단하면서도 활기 넘치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 바로 묵호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묵호진동의 논골담길이다.

논골담길은 단순히 벽화가 예쁜 마을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희망을 담벼락에 그려낸 '담화 마을'이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따라 이어진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명태 덕장에서 일하는 아저씨', 과거 '누렁이도 만원 지폐를 물고 다녔다'는 등 당시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벽화 하나하나에는 묵호항에 기대어 살던 이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어, 여행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선사한다.

마을 정상부에는 묵호등대가 우뚝 솟아 있다. 1968년 첫 불을 밝힌 이래 묵호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등대 주변은 바람의 언덕으로 불릴 만큼 바람이 거세다.

매서운 바닷바람에 맞서 알록달록한 지붕을 인 마을 풍경과 수평선 너머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경험은 묵호동 여행의 백미이다. 추암해변과 다른 느낌, 묵호항의 활기와 일출의 힘찬 기운을 모두 만날 수도 있다.

묵호등대 일대는 해양문화공원으로 조성돼 있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이어진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이 지역 사투리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비가 내리면 푸른빛이 보이는데 이게 도깨비불처럼 보여 이곳을 도째비골이라 불렀다. 까마득한 옛날 늦은 밤에 이 골짜기를 걸어갈 생각을 했다면 등골이 오싹했겠지만, 지금은 이곳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들어섰다. 주요 시설은 전망시설인 스카이워크와 체험시설인 스카이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이 있다. 겨울철에는 매서운 날씨 탓에 체험이 버겁다. 도째비골 아래에는 바다를 조망하는 해랑전망대가 있다. 이곳에 발을 들이면 투명유리 바닥 아래로 거칠게 부서지는 파도를 마주한다. 두 시설물 모두 야간에는 LED 조명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빛나며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A**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진동 2-109
**T** 070-7799-6955

## 폐광의 기적,
## 무릉별유천지에서 만나는 역동적인 상승의 에너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는 과거 40여 년간 석회석 채굴 현장이었던 무릉3지구 광산이었다. 산업화 시대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채광 작업이 종료된 후, 동해시의 혁신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에메랄드빛 호수와 이색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복합 문화 관광 공간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했다. 폐광의 유산을 미래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킨 이곳은 여행객들에게 단순한 볼거리 그 이상이다.

먼저 쇄석장 건물 1층 전시 공간은 당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 이곳의 특별한 탄생 배경을 말없이 보여준다. 이색적인 장비들과 함께 폐광이 호수와 라벤더 정원을 품은 관광지로 변화한 스토리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야외에는 무릉별유천지 전체를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한눈에 조망하는 두미르전망대와 거대한 석회석을 실어 나르던 몬스터 덤프트럭 등 챙겨볼 것들이 많다. 놀라운 점은 트럭의 가격이 무려 12억 4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스릴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에 있다. 하늘을 나는 듯한 스카이 글라이더는 탑승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감돈다. 엎드린 자세로 와이어에 몸을 맡기면, 발아래로 아찔한 높이의 채석장 절벽과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안전바가 내려오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심장이 멎을 듯한 기대감에 휩싸인다. 이내 출발 신호와 함께 시속 80㎞에 달하는 속도로 허공을 가른다. 이구동성, 비명이 이어지고 면도칼보다 날카로운 찬 바람이 얼굴을 강타한다. 압도적인 쾌감에 흥분과 아쉬움이 뒤섞인 채 비행이 끝난다.

스카이 글라이더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다음은 거친 오프로드 트랙이 기다리고 있다. 헬멧을 쓰고 루지에 탑승하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코너를 돌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울퉁불퉁한 노면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이외에 짜릿한 속도감을 자랑하는 알파인 코스터, 롤러코스터와 집라인의 매력을 결합한 롤러코스터형 집라인도 도파민을 수직 상승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러한 체험시설들은 옛 채석장의 독특한 지형을 활용하여 조성된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을 제공한다.

### 무릉별유천지

**A**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기로 97 제2주차장
**T** 033-533-0101

글. 편집실 사진 제공. 각 지자체 제공

# 신년의 소원을 담은 해돋이 명소

**새해의 소원은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식이다. 떠오르는 해, 강렬하고 붉은빛에 소망 하나 띄워 올린 다면 내일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당진 서해대교

서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연 일몰을 최고로 꼽을 것이다. 그러나 서해의 아름다움은 '지는 해'가 아니라 '뜨고 지는 해' 모두에서 느낄 수 있다. 강렬함을 훌훌 벗어 던진 홀가분한 분홍색 빛이 은은한 바다 위로 번지는 풍경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아련한 마음을 반영한 듯 몽환적이다. 그렇게 한 해를 배웅하다 보면 파스텔 톤으로 하늘이 밝아오고, 어느새 환해진 주변은 왠지 내일의 내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서해대교 교각 사이로 떠오르는 해는 왜목마을에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다. 서해에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고요하고 나직한 마을의 분위기가 서해의 잔잔한 풍경과 잘 맞아 상념을 정리하기에도 좋다.

**A**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15-5(왜목마을)
**H** 2026년 1월 1일 일출 시각 07:46(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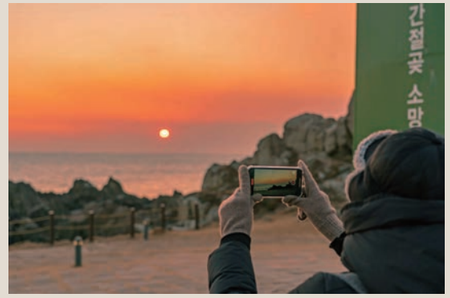
## 포항 호미곶

'손에 움켜쥔다'는 말은 소유, 획득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흔히 쓰인다. 손안에 들어오면 어쩐지 모두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가. 새해를 앞두고 포항 호미곶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포항 호미곶의 상징인 '상생의 손'은 다가오는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손이 하늘을 향해 뻗은 모양으로, 해안가의 왼손, 바다에 오른속이 하나의 짝을 이룬다. 보는 각도에 따라 손안에 해가 담긴 듯 보이기도 한데, 손 양옆으로 가로등과 나무가 늘어서 있어 더욱 특별한 풍경을 자아낸다. 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과 주차비가 무료라는 점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이다.

**A**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
**H** 2026년 1월 1일 일출 시각 07:33(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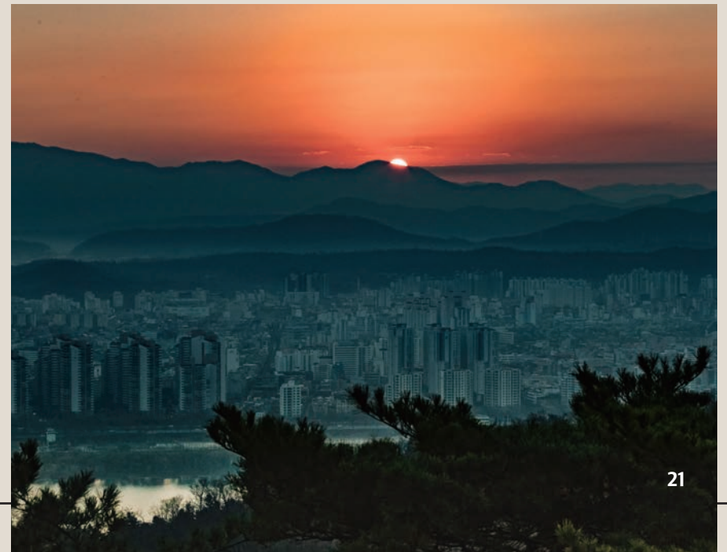
## 울산 간절곶




짙은 어둠이 드리운 새벽, 내륙에서 가장 먼저 밝아오는 곳이 있다. 울산 간절곶은 해뜨는 곳을 향한 동해에서도 길게 튀어나와 가장 먼저 해의 둥근 머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제일 먼저 소원을 빌다니, 왠지 이루어지는 것도 먼저일 것 같아 매력적이지만, 간절곶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다름 아닌 풍경에 있다. 동해의 짙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는 걱정을 태우듯 강렬하다. 빛 주변으로는 짙은 푸른색의 바다와 하늘이 있어 생동감 넘친다. 실제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망 우체통이 있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엽서를 준비해가면 더욱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A**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39-2
**H** 2026년 1월 1일 일출 시각 07:32(변동 가능)

## 서울 아차산



높은 빌딩에 둘러싸인 도시의 아침은 느리게 밝아오는 것 같지만, 아차산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가파르지 않은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새 동쪽 하늘이 서서히 색을 바꾸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복잡한 도시에 이런 '일출 명당'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울 정도다. 아차산의 매력은 복잡한 준비가 필요 없다는 데 있다. 3개의 코스를 통해 정상 또는 해맞이광장에 다다를 수 있는데, 모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면 왕복이 가능하다. 1코스의 소나무 숲길과 2코스의 고구려정, 3코스를 따라 용마산까지 이어지는 능선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아침의 빛을 맞는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오를 때보다 짧고 한결 가볍다. 이미 마음속에서 하루가 환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A**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27(아차산생태공원)
**H** 2026년 1월 1일 일출 시각 07:47(변동 가능)

글. 최행좌 사진. 황지현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동해, 이병옥 셰프는 이곳에서 싱싱한 재료로 하루의 맛을 시작한다. 그는 동해의 미식을 끌어올리며, 식재료 하나하나를 가장 동해다운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해가 떠오르듯 그의 요리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동해의 식탁을 채워간다.

# 동해의 미식을 올리는 시간들

이병옥 셰프

## 그림을 그리듯 동해를 요리하다

묵호 자연산 문어와 레몬, 허브로 상큼하게 완성한 문어 카르파초, 민들조개를 화이트와인에 찐 째복 와인찜, 단맛이 살아 있는 보리새우와 매콤한 특제소스를 더한 보리새우무침. 동해의 식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음식들이다. 이병옥 한섬 셰프의 요리는 정갈하면서도 화려하고, 깊으면서도 산뜻하다. 한때 화가를 꿈꾸는 그는 지금 접시 위에 맛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마치 일출이 바다 위에 색을 얹듯 그의 손끝에서 재료들은 저마다의 빛을 얻는다.

황해도 출신인 어머니의 손맛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미식에 눈을 떴다는 그는 한번 맛본 음식은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맛의 중심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짚어낸다.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동생은 제게 '그림을 그리듯 요리한다'라고 표현해 주기도 했죠."

요리를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게 된 건 의외로 단순했다. 그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건넨 말들이었다. "위로받는 느낌이다", "대접받는 기분이다", "재료의 신선함이 살아있다"라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셰프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책과 영상으로 공부하며 자신만의 요리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재료를 대하는 태도부터 조합을 풀어내는 방식까지, 그 모든 과정은 그의 손에서 천천히 쌓아 올린 결과다.

"요리를 하다 보면 '이 조합에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건 몰랐던 조합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신기한 맛이 나오는구나' 하고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 발견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이 요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에게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동해의 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 제철 재료로 완성한 한 접시

이병옥 셰프가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는 '제철'이다. 동해는 좋은 식재료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그에게는 요리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그는 시장을 돌며 그 계절에 가장 좋은 로컬 식재료를 고르고, 재료의 그날 그날 상태에 따라 메뉴를 유연하게 구성한다.

그래서 한섬의 메뉴판에는 신선한 단어와 재료의 조합이 가득하다. 묵호 앞바다 문어 카르파초, 망상 째복 와인찜, 동해 보리새우무침처럼 메뉴 이름에는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담았다.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름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행복한 기다림'이 시작된다.

"'째복'은 민들조개를 부르는 동해 사투리예요. '쩨쩨하고 보잘것없다' 해서 붙은 이름이지만, 맛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감칠맛이 좋아 제가 만든 조개 와인찜 중 단연 최고라고 생각해요. 조개를 먹은 후 파스타를 추가하면 또 하나의 요리가 완성되죠."

겨울이 되면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해산물 맛은 한층 깊어진다. 특히 이맘때 동해 보리새우는 탱글탱글한 식감과 단맛이 절정에 이른다. 묵호항에서 바로 공수한 자연산 재료들이기에 신선함을 말할 것도 없다. 그가 제철 식재료가 지닌 고유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요리를 고집하는 이유다.

## 밥 한 끼에 담긴 마음, 요리가 이어주는 인연

엄마가 새벽부터 차려낸 밥상,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나눈 저녁 한 끼. 그 안에는 언제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다. 이병옥 셰프에게 요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순간이다.

이 생각은 우리말 '식구'와도 닮아 있다.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사이를 뜻하지만, 혈연을 넘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결국 밥을 나눈다는 건 한 식탁에 마주 앉는 일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셈이다.

로컬 음식을 찾아 전국을 여행하던 부부 손님이 "로컬 재료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고맙다"라며 서울 자택으로 초대했던 일, "정말 좋은 음식을 먹었다"라며 잔돈을 챙겨 건네던 스페인 여행자들, 그리고 "음식은 심장으로 전해진다"라는 체코의 속담을 알려준 체코 친구까지. 이병옥 셰프에게 이들은 모두 '식구'다. 그래서 그는 요리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한다.

"사람들과 직접 부딪혀보고 대화도 나누고,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을 알아야 로컬 요리가 제대로 나와요. 레시피만 따라 한다고 완성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직접 맛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 요리의 깊이도 더해지지 않을까요."

동해의 미식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국 한 접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이병옥 셰프는 오늘도 동해의 식재료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 편집실 그림. Rosy

# 일출 원정대의 완벽한 방한템

**일출을 직접 보러 가본 사람들은 다 안다. 엄청 춥다는 걸. 그래서 준비물이 필요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방한템을 소개한다.**

칼바람을 이기는 패딩의 힘

## 롱패딩

롱패딩은 마치 커다란 방패처럼 일출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다. 몸을 감싸는 폭신한 두께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줄 뿐 아니라 무릎 아래까지 이어지는 길이감이 급격한 체온 저하를 막아준다. 롱패딩은 꽁꽁 언 마음까지도 데워주는 '아우터' 이상의 존재감을 뽐낸다.



얼굴은 절대 지켜

## 바라클라바

일출을 보는 시간은 새벽 공기가 가장 매서워지는 순간이다. 특히 바닷가나 산 정상처럼 바람이 강한 곳에서는 평소보다 5~10도 더 춥게 느껴지곤 한다. 그럴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결합한 바라클라바가 있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머리 전체와 목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구조 덕분에 혹한 속에서도 체온을 잃지 않게 해줘 든든하다. 원래는 스키, 등산, 라이딩처럼 거센 바람과 맞서는 겨울 스포츠에서 생존처럼 필요한 '혹한용 모자'로 쓰였지만, 요즘에는 바라클라바 위에 후드나 아우터를 가볍게 덧입는 스타일이 하나의 겨울 패션으로 자리 잡았다.

발끝까지 포근해

## 어그부츠

겨울 새벽, 발끝까지 따뜻함을 지키고 싶다면 어그부츠만큼 확실한 선택은 없다. 부드럽고 따뜻한 양털로 속을 채운 어그부츠는 진짜 '최고의 방한 아이템'으로 손색없다. 특히 지면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모래, 바위, 데크의 차가움은 바람보다 더 몸을 얼게 한다. 이럴 때 어그부츠는 포근한 촉감과 후끈한 보온력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내 귀를 사수하라

## 귀마개

귀는 몸에서 가장 여리고, 가장 먼저 얼어붙는 곳이다. 찬바람이 스치는 순간, 감각이 사라지고 금세 붉게 달아오른다. 귀마개는 그런 귀를 포근하게 감싸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방패가 된다. 귀를 감싸는 부드러운 울타리 덕분에 혹독한 바람에도 편안함을 지킬 수 있다.

손끝을 지키는 작은 난로

## 휴대용 손난로

일출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쥐거나 카메라를 만질 때 손은 새벽 바람에 가장 먼저 항복하고 만다. 이때 휴대용 손난로는 손끝에서 손바닥, 손목으로 온기를 퍼뜨리는 존재가 된다. 발열 소자가 내장돼 손에 쥐자마자 순식간에 따뜻해진다. 한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다. 흔히 손난로가 '손만 데우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난로를 쥐고 있으면 손목 혈류를 타고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 체온을 높여주는 작지만 강력한 아이템이다.

## 일출 볼 확률을 높이는 기술

### 1. 정확한 일출 시간 체크는 필수

방문할 장소의 일출 시간을 미리 확인하자. 날짜별, 지역별 일출 시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공식 일출 시간보다 최소 30분 먼저 도착하는 게 좋다.

### 2. 날씨 및 구름 조건 확인

일출을 볼 확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맑은 날씨다. 구름이 너무 많으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가릴 수 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날씨를 체크하자. 강수확률, 구름의 양, 해무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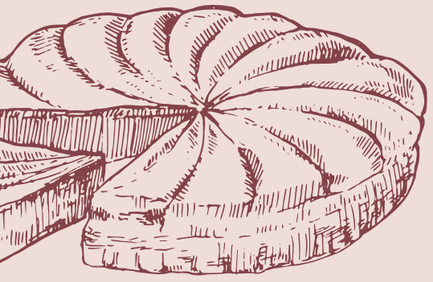
### 3. 적절한 장소와 위치 선정

태양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트여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없고, 바다·들판처럼 수평선이 잘 보이는 곳이나 산 정상, 전망대 같은 높은 곳도 좋다.

글. 최행좌

# 새해 식탁을 채우는

**새해의 맛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닮아 있다. 행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음식들. 각국의 전통이 깃든 한 접시는 한 해의 첫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든다. 세계의 새해 음식들 속에 담긴 이야기와 풍요로운 맛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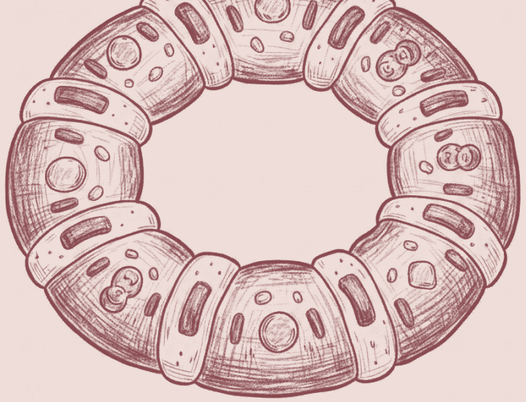
행운의 황금 파이

## 갈레트 데 루아

프랑스에서는 새해가 밝는 순간,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갈레트 데 루아(Galette des Rois)'를 한 조각씩 나누며 서로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황금빛 페이스트리는 바삭하게 부서지며 그 속에서 은은한 아몬드 크림 향이 퍼진다. 겉은 가볍게 갈라지고 속은 촉촉하게 감싸는 '겉바속촉'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긴 파이다.

그러나 진짜 설렘은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도자기 인형 '페브(Fève)'에서 시작된다. 포춘쿠키처럼 뜻밖의 순간을 품은 이 작은 인형을 누가 찾아내느냐에 따라 그날의 왕과 왕비가 정해진다. '왕의 빵'이라는 이름답게 페브를 찾은 사람은 종이 왕관을 머리에 올리고 하루 동안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특별한 대접을 누린다.

프랑스의 새해 풍경은 한 조각의 파이가 행운이 되고, 작은 인형 하나가 하루의 마법을 여는 달콤한 순간으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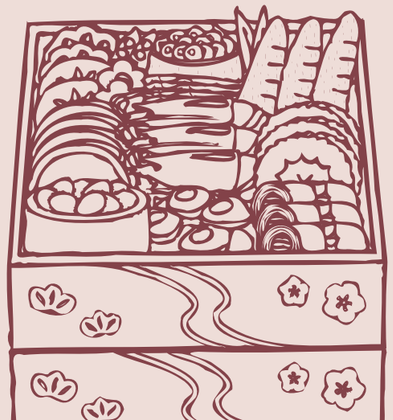


왕관에 숨긴 축복의 조각

## 로스카 데 레예스

로스카 데 레예스(Rosca de Reyes)는 멕시코의 새해를 밝히는 상징 같은 빵으로, 왕의 왕관을 닮은 둥근 도넛 형태가 특징이다. 원형의 빵 반죽 위에는 설탕에 절인 형형색색의 과일이 장식처럼 놓여 있는데, 이는 보석처럼 빛나는 왕관의 장식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빵을 종종 사랑스럽게 '로스카(Rosca)'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드러운 빵 속에는 작은 구운 인형이나 상징물이 숨겨져 있다. 함께 나눠 먹는 동안 누군가의 조각에서 그 작은 인형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사람에게는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든다고 믿는다. 마치 빵 속에 숨겨 둔 작은 기적을 찾는 의식처럼 로스카 데 레예스는 단순한 빵을 넘어 새해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멕시코의 따뜻한 전통이다.



복과 길조를 담은 찬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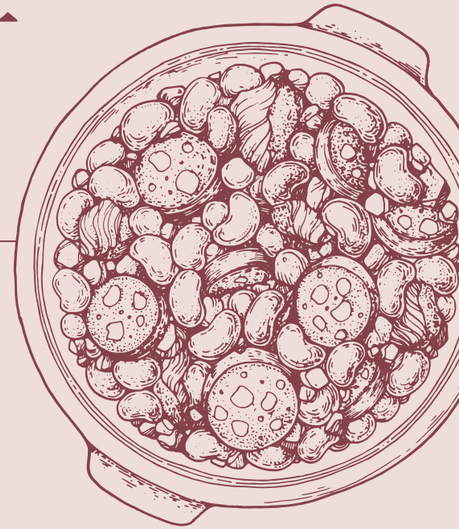
## 오세치

오세치(おせち)는 일본의 새해를 상징하는 대표 음식이다. 커다란 3~5단 찬합에 구이, 초절임, 찜, 조림 등 20~30가지의 음식을 정성스럽게 채워 넣는데, 구성은 지방과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도시락 형태의 찬합에 오세치를 담기 시작한 것은 에도 시대 이후로, 신에게 올리는 제물의 의미와 함께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엔기모노(吉兆物, 길조를 비는 음식)'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오세치에는 새해의 복을 부르는 상징적인 재료들이 가득하다.

장수를 의미하는 도미와 새우, 풍년을 기원하는 멸치, 자손 번영을 담은 청어알(카즈노코), 행운의 검정콩(쿠로마메), 지혜를 상징하는 연근, 재물운을 더하는 밤까지. 각각의 음식은 작은 부적처럼 의미를 품고 있다.

최근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기보다 예약 주문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었고, 전통 일본 요리뿐 아니라 프렌치 스타일로 재해석한 고급 오세치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한 상 위에서 어우러지는 일본의 새해 풍경이다.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한 그릇

## 페이조아다

페이조아다(Feijoada)는 검은콩과 돼지고기, 소고기를 오래도록 푹 끓여 만든 스튜로,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음식이다. 이름 그대로 '콩으로 만든 요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속에는 아픈 역사와 생존의 지혜가 함께 담겨 있다.

노예 시절, 주인들이 먹지 않던 돼지의 귀·코·내장 같은 부산물을 모아 검은콩과 함께 끓여 먹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버려진 재료였지만 긴 시간과 정성은 그것을 깊은 맛으로 바꾸어 주었고, 페이조아다는 고난 속에서도 삶의 맛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음식이 됐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새해를 맞이할 때 페이조아다를 먹는 것이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어져 왔다. 검은콩의 풍성함과 오래도록 끓여 우러난 깊은 맛이 한 해를 든든하게 시작하라는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진하게 우러난 페이조아다는 브라질식 쌀밥 아로즈(Arroz)와 고소한 파로파(Farofa), 매콤한 핫소스를 곁들이면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 한 그릇이 주는 온기는 새해의 식탁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준다.

정리. 편집실

# 나를 끌어올린 Rise 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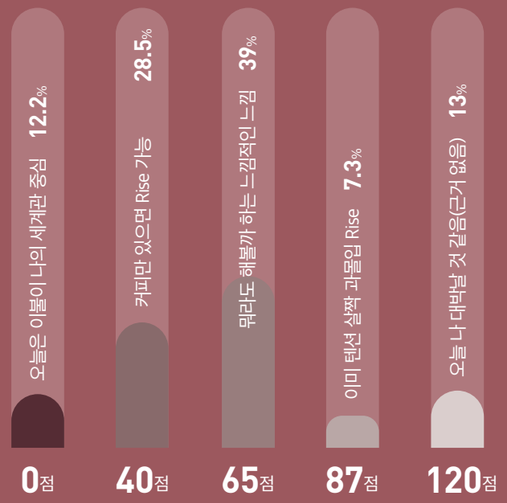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Rise 버튼'은 제각각이다. 떠오르는 태양일 수도, 그래프의 상승일 수도, 아직 찾지 못한 그 무언가일 수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Rise는 어떤 순간일까.**

**응답자 수 1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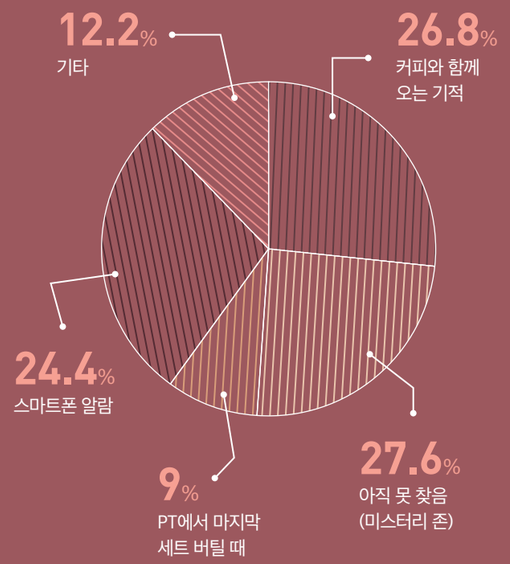
## 'Rise'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 **76.4%**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
- **13%** 주식 그래프의 상승 곡선
- **4%**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는 열기구
- **2%** 좋아하는 팀이 역전하는 순간
- **4.6%** 기타 (아이돌 '라이즈')

## '오늘 나의 Rise 지수'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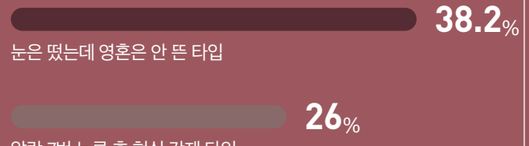



## 나의 Rise 버튼은 어디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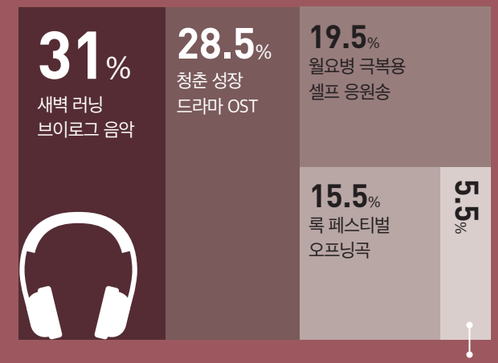





## 나의 기상(起床)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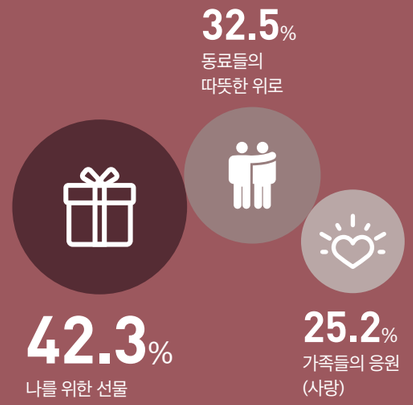

## 'Rise'를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 요즘 나를 '일으키는' 루틴은?

로또 1장 · 자녀 · 아침밥 준비하는 소리 · 배고픔 · 새벽 운동 40분 · 유수율 · 강아지와 동네 산책 · 주식 · 월급 · 트와이스

## 주저 앉은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




## '상승감'이 최고조로 도달하는 순간

- 지금 이 순간 — **AI데이터센터 홍승우**
- 여행가기 전날 — **창원권지사 이시현**
-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 — **평화의댐지사 김재원**
- 아들이 빵긋 웃어줄 때 — **용담댐지사 장선홍**
- 야구 9회 말 투아웃 2·3루 역전주자, 4번 타자! — **신성장전략단 이희정**
- 도파민이 충전되었을 때 (<환승연애> 시청) —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처) 이예인**

글. 이혜원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 아침 7시, 모닝 레이브가 그리는 상승형 웰니스

아침 7시, 창밖으로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의 한 카페. 힙합 뮤지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신곡을 부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이스 라테나 오렌지 주스를 들고 DJ 부스에서 울려 퍼지는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든다. '모닝 레이브(Morning Rave)'의 풍경이다. '레이브(Rave)'는 본래 밤늦게 열리는 대규모 댄스파티를 뜻한다. 강렬한 비트, 현란한 조명, 그리고 밤새 이어지는 에너지가 레이브의 특징이다. 모닝 레이브는 이를 아침 시간대로 옮겨온 것이다. 알코올음료 대신 커피나 스무디 같은 건강음료를 마시며, 깜깜한 밤 대신 해 뜨는 아침을 택한 사람들의 파티. 일견 어색해 보이는 이 조합은 지금 전 세계 웰니스 트렌드의 중심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하강에서 상승으로, 에너지 곡선을 뒤집다

전통적인 클럽 문화는 '하강의 문법'을 따른다. 늦은 밤에 시작한 흥은 술과 함께 점점 고조되지만, 새벽이 되면 피로와 숙취로 무너져 잠에 이르게 한다. 다음날은 침대에 누운 채 무기력하게 시작되며, 때로는 감정적 하강, 즉 후회마저 뒤따른다. 그러나 모닝 레이브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린다. 이른 아침에 모인 사람들은 커피와 음악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춤으로 활기를 불러일으키며,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루를 출발한다. 이것이 바로 모닝 레이브가 약속하는 '상승 곡선'이다.

모닝 레이브의 상승세는 음주량을 줄이거나 술 없는 삶을 탐구하려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라는 문화와 맞닿아 있다. 2024년 미국 국립알코올남용연구소(NIAAA)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65%가 2025년 음주량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39%는 아예 금주를 선언했다. '술을 마셔야만 즐겁다'라는 고정관념에 의문을 던지고, 술 없이도 충분히 신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2013년 브루클린의 한 카페에서 시작해 전 세계 30여 개 도시에서 약 1,000회에 가까운 행사를 연 Daybreaker, 런던에서 출발해 요가와 마사지까지 결합한 Morning Gloryville은 모닝 레이브의 원조 격이다. 이들은 술 없이도 충분히 즐거운 파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왔다.

## 아침 시간, 오래된 상승의 약속

아침을 신성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은 인류의 오랜 본능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매일 아침 지하 세계에서 솟아올라 배를 타고 하늘로 떠오르는 태양신 '라(Ra)'를 탄생의 상징으로 여겼다. 힌두교에서는 해뜨기 전 새벽에 행하는 의식들로부터 정화와 영적 준비를 도모했다. 불교에서는 이른 아침 명상과 독송이 첫 빛의 평화로운 에너지와 마음을 일치시킨다고 보았다. 기독교의 새벽 예배, 이슬람의 새벽 기도(파즈르),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라이즈 세리머니까지 모두 아침의 루틴을 신성시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출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삶의 궤적이 올라가는 순간으로 인식되었다. 모닝 레이브는 바로 이 오래된 직관을 21세기 도시의 언어로 해석한 것이다. 술과 파티가 주던 일시적 고양감 대신 아침 햇살과 커피, 음악과 춤으로 하루를 여는 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직관해 온 진리로의 회귀일지도 모른다.

## 총체적 웰니스를 향하여

모닝 레이브는 웰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담고 있다. 2025년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84%가 웰니스를 최우선 또는 중요한 삶의 가치로 꼽았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웰니스는 더 이상 체중 감량이나 근육 만들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신적·정서적 건강, 직업적 성장, 사회적 관계, 환경까지 총체적으로 포괄한다.

'웰니스 파티'라는 단어의 조합은 바로 이 지점을 보여준다. 건강은 고립된 개인의 자기 관리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즐거움, 그리고 의미 있는 연결 속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모닝 레이브는 단순한 '아침형 인간들의 부지런 떨기'가 아니다. 미라클 모닝, 갓생 같은 자기 계발이 혼자서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며 자기 향상에 집중한다면, 모닝 레이브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교류'에 방점을 찍는다. Global Wellness Summit의 2025 보고서가 '아날로그 웰니스'와 '커뮤니티 중심 피트니스'를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는 점도 이러한 특성을 뒷받침한다. 사람들은 화면 뒤에 숨지 않고, 실제로 만나 땀 흘리고 웃으며 연결되길 원한다.

"오늘 밤 어디 갈까?" 대신 "내일 아침 어디서 시작할까?"라고 묻는 이들은 숙취와 후회가 아니라 활력과 기대로 하루를 맞이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즐기고자 한다. 아침 7시, 커피 한 잔과 함께 춤추는 사람들은 단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방식으로 '잘 사는 것(Wellness)'을 정의하고 있다.

해가 뜨는 시간, 에너지가 상승하는 시간, 그리고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 모닝 레이브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는가?

글. 최행좌 사진. 황지현

**한화이글스의 상승 흐름 한가운데에는 한 명의 루키가 있었다. 처음 마운드를 밟던 순간의 떨림은 어느새 팀의 기세를 끌어올리는 에너지로 바뀌었고, 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그의 발끝에서 차곡차곡 쌓여갔다. 루키의 패기와 상승의 흐름을 동시에 증명해낸 정우주 선수의 이야기다.**

# 한화이글스를 상승세로 쏘아올린 루키

## 정우주 선수

### 마운드 위를 지배하는 '정유니버스'

지난해 KBO 리그에서 한화이글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2위라는 성적을 거뒀다. 그 중심에는 신인 정우주 선수가 있다.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맞이한 데뷔 시즌, 그는 팀의 상승 기류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루키라고 하기엔 너무 침착했고, 신인이라기엔 믿음직스러웠다. 직선으로 뻗어 나가는 시속 150㎞의 강속구,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 금세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는 회복력. 정우주 선수는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했다.

"야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선수들 한 명 한 명 자기 역할을 다해 주셨고, 감독님의 리더십과 팀 분위기도 안정적이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팬들의 응원도 힘이 됐고요. 응원이 커지니까 선수들의 마음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8월 키움전에서 정우주 선수는 단 한 번의 볼도 없이 아홉 개의 공으로 세 타자를 모두 삼구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무결점 이닝'을 기록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KBO 리그 역사상 11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록인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저도 모르게 일주일 넘게 경기 영상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가 던진 게 맞나' 싶어서요."

흥미로운 건 팬들이 그에게 붙여준 애칭들이다. 정유니버스, 정스페이스, 코스모스, 갤럭시, 그리고 한자로 '집 우(宇), 집 주(宙)'를 써 만든 집집이까지. 그의 이름에서 파생된 별칭이지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우주(宇宙)'라는 말처럼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 끝을 짐작할 수 없는 성장의 폭, 언젠가 팀의 미래를 이끌 거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겹겹이 쌓여 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별칭으로 불릴 줄은 몰랐거든요. 팬분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또 애정 있게 응원해주시는지 느껴져요. 특히 제 등장곡이 '코스모스'여서 그런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기대한다', '더 멀리 가라' 이런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크게 와닿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는 팬들이 붙여준 애칭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별처럼 자신의 우주 속에 떠 있는 것 같다고.

**정우주 선수 개인적으로는 '루키 돌풍'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올해 스스로 가장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긴장도 컸어요. 하지만 시즌이 중반쯤 지나면서부터 '아, 그래도 내가 해낼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경기마다 배운 게 쌓이면서 멘탈도 단단해졌고요.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제 공을 던질 수 있었을 때 조금은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성적뿐만 아니라 2025년 한화이글스의 상승세가 대단했어요. 지난 시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요?**

한 경기만 고르는 건 참 어렵네요. 그래도 꼽으라면 2025 K-BASEBALL SERIES 한일전 2차전이 떠올라요. 선발로 나가기 전에는 '어떻게 던져야 하지'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마운드에 서니 머릿속이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준비한 대로, 그냥 자신 있게 던지자." 그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상대가 강할수록 오히려 더 집중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랬어요. 결과보다 '지금 내 공'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시속 150㎞가 넘는 패스트볼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강속구 외에도 변화구 연습을 많이 한다고요.**

맞아요. 요즘은 변화구의 세밀함을 더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릴리스 포인트(Release Point)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서 타자들이 구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야구는 공 하나, 손끝 하나의 차이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듬고 또 다듬고 있어요. 스프링 캠프에서 완성도를 더 끌어올려서 팬들에게 "오? 정유니버스 달라졌네."라는 반응을 받고 싶어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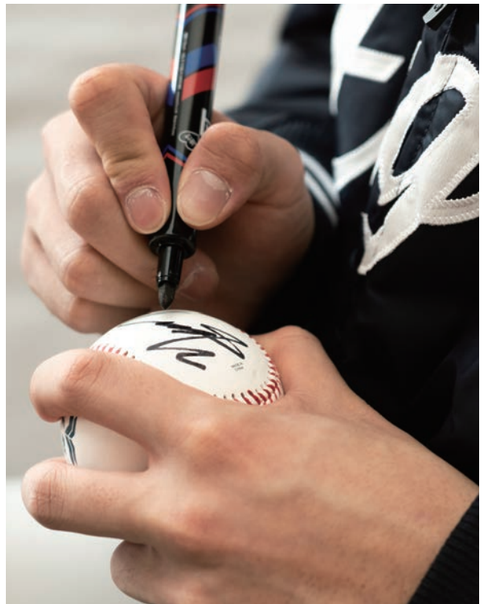


**경기가 잘 안 풀리는 날도 있잖아요.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우주 선수만의 극복법이 궁금해요.**

안 좋았던 장면을 오래 붙잡아두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잘 던졌던 경기 영상을 돌려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제 페이스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다시 된다' 싶은 흐름이 오더라고요. 방향을 잃은 배가 항구의 불빛을 다시 발견하는 것처럼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한국수자원공사의 '루키' 신입사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세요.**

저도 프로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긴장됐어요. 그런데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배우려고 하자'는 마음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선배님들께 먼저 인사하고, 모르는 건 바로 물어보고,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 관계도 금방 편해지고, 저도 더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이건 야구든 회사든 비슷할 것 같아요.



**대전에 연고를 둔 한화이글스가 올해 창단 40주년이더라고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도 대전에 있다 보니 공사에 한화이글스 팬들이 무척 많습니다. 한화이글스와 정우주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선수로서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에요. 경기장에서 들리는 응원 소리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응원은 선수에게 더 크게 와닿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만큼 저도 마운드에서 그만큼 보답하고 싶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서로 파이팅해요!(웃음)

**정우주 선수의 2026년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최종 선발 투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팀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선수. 그리고 루키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아, 이게 진짜 정우주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어요. 2026년은 저한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양이 떠오를 때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요.

글. 최행좌 사진. 황지현 영상. 이덕재

# 가장 크고 가장 바쁜데, 분위기는 상승세 경기동남권지사

**한국수자원공사 내 최대 규모의 수도사업장, 경기동남권지사.
기술은 고도화되고,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열정 가득한 에너지가 차오르는 현장에 수타벅스가 찾아갔다.**

## 수도권 물 공급의 중심

경기도 성남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장 큰 수도사업장이 있다. 바로 경기동남권지사다. 이곳은 수도권 물 공급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수원·화성·용인·평택·성남·오산·안성 등 7개 지자체는 물론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단지까지 물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곳들의 일상과 산업을 지탱하는, 명실공히 수도권 물 공급의 파수꾼이다.

규모 역시 '최대'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경기동남권지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최대 규모의 정수장 두 곳과 가장 큰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정수장은 수도권광역상수도 3·4단계를 담당하며 하루 78만 6천㎥, 수지정수장은 5·6단계를 운영하며 하루 91만 6천㎥의 시설용량을 갖췄다. 여기에 판교·용인가압장이 더해지는데, 판교가압장은 공사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물만 공급하는 곳은 아니다. 하루 평균 3만 병 이상 생산 가능한 병물 시설을 비롯해 소수력·태양광 발전, 소수력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까지. 말 그대로 '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현장이다. 조직도 그만큼 크다. 3개 부서, 11개 세부 조직, 100여 명의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남향진 부장은 "직원들의 팀워크와 열정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키워온 전문성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 힘이 경기동남권지사를 움직입니다"라며 강조했다. 긴장을 늦출 틈 없는 현장, 그 중심에는 늘 이들이 있었다.

## 기술로 완성하는 신뢰

경기동남권지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한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최대 가압장인 판교가압장에 대용량 비상발전기 구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전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도체 클러스터인 시흥, 화성 삼성전자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경기동남권지사의 목표는 명확하다. 수지정수장의 기술 혁신을 통한 고도시설 조기 안정화, 고도처리율 100%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하루 91만 6천 톤 규모의 공사 최대 고품질 수돗물 생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신뢰도까지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박희일 지사장은 요즘 '안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가 직전에 안전본부에서 근무했거든요. 경기동남권지사를 전사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고, 공사 최대 물량을 책임지는 현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현장을 향한 책임감은 분명했다.

## 웃음이 번진 수타벅스 현장

쉴 틈 없이 현장을 지켜온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타벅스'가 경기동남권지사를 찾았다. 강도 높은 업무 속에서 수타벅스는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한 잔의 여유였다.

"여러 번 신청했는데 드디어 수타벅스가 와서 정말 기뻐요. 수타벅스의 응원을 받아 2026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예창완 과장은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커피와 추로스를 곁들인 대화 속에서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교대 근무 중인 동료를 위해 간식을 챙기는 모습도 이어졌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은 훈훈하게 전해졌다.

안호균 차장은 "수타벅스 덕분에 성남, 판교, 수지 3개의 사업장에 서로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잠시 쉬어갈 수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라며 엄지를 세웠다. 김희영 대리는 "업무로 다들 지쳐있었는데 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경연 대리는 올해 '상승세 직원'으로 선정됐다. 이유는 조금 특별하다. 4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이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좋은 기운을 다른 분들께도 나누고 싶어요." 그의 미소에는 이곳의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덕담을 나누는 짧은 순간, 경기동남권지사의 분주한 하루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경기동남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보세요.**

### Mini-Interview

**박희일 지사장**

우리 공사에서 가장 큰 사업장에 부임하게 되어 자부심과 함께 부담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 모두가 존중받고,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운 행복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규 대리**

홍보 업무를 맡으며 중남미 물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경기동남권지사를 견학했을 때, 스페인어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6년에도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 경기동남권지사를 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예창완 과장**

추운 날씨에 동료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보던 수타벅스를 직접 만나 더욱 반가웠어요. 무엇보다 우리 공사를 대표하는 수도사업장인 경기동남권지사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 K-water연구원 참고자료. 『Water & Tech INSIGHT』(8월호)

# 재생에너지 전환의 해답 가상발전소

**햇볕이 좋은 날엔 전기가 넘치고, 바람이 멎으면 공급이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고민이다. 분산된 에너지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기술, 가상발전소가 주목받는 이유다.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한 이 기술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 분산된 에너지를 하나로 묶다, 가상발전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전환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태양과 바람이라는 자연조건에 좌우되는 만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전력이 넘치고, 흐리거나 바람이 잦아들면 공급은 급격히 줄어든다. 예측이 쉽지 않은 발전 특성은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흔들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협한다. 이 불균형이 누적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대규모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계통 운영 방식의 혁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다.

이 같은 고민의 해법으로 떠오른 기술이 바로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이하 VPP)다. VPP는 ICT 기술을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생산과 분배를 조정한다. 개별 자원은 소규모일지라도, 이를 묶어 제어하면 대형 발전소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VPP의 핵심은 '통합 제어'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발전량과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만큼 전력을 생산·저장·공급한다. 그 결과 전력계통의 유연성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은 자연스럽게 보완된다.

### VPP 구성 방식

**공급형 VPP**
태양광·풍력처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수력, 양수발전, 배터리 등 제어 가능한 자원을 결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수요형 VPP**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ESS(B-ESS), 공조설비(HVAC) 등 수요자원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거나 잉여전력을 전력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융합형 VPP**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공급 기능에 더해 수요반응(DR),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결합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한다.

## 성장 가속화되는 글로벌 VPP 시장

VPP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 단계를 넘어섰다. 글로벌 VPP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3억 달러(약 4조 6천억 원)로 추산되며,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2033년에는 약 207억 달러(약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SS 보급 확대와 비용 효율성 개선,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전력시장 제도가 유연한 국가일수록 VPP 사업 모델이 빠르게 정착하는 모습이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VPP 사업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독일의 Next Kraftwerke는 유럽 최대 규모의 VPP 사업자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천 개의 분산에너지 자원을 통합 운영한다. 가정용 배터리 제조사 Sonnen은 개인 간 전력거래(P2P)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소비재'가 아닌 '거래 자산'으로 바꾸며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다.

미국에서는 Sunverge Energy가 실시간 데이터 기반 분산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선도하고 있다. 가정용 에너지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온도조절기, 온수기 등을 연계해 수요관리 중심의 VPP를 구현했다. Tesla는 주택용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Powerwall)를 결합한 VPP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수급조정시장 개설 이후 VPP 시장 참여가 본격화됐다. Mirai Energy는 태양광 설비 무상 설치와 잉여전력 매입, 유지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운영 중이며, Toshiba는 IoT·AI 기반 분산전원 및 ESS 실시간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VPP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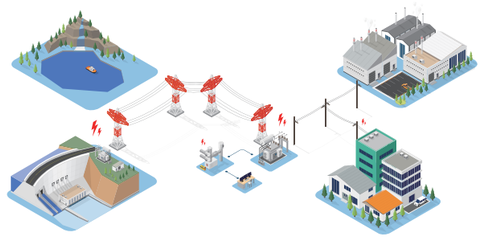
## 국내 VPP 시장의 과제와 가능성

반면 우리나라는 VPP 집합 자원화의 시작단계이다. 2019년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등 20MW 이하 소규모 전력자원으로부터 나온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2024년 6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한국수자원공사도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루 전 발전량을 예측해 입찰하고, 실제 발전량이 일정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 추가 정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기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다. 전국에 분포한 수력·태양광·조력 발전소를 활용한 지역별 VPP 구축은 물론 수도사업장의 비상발전기와 펌프 설비 부하 조정을 통한 수요자원 반응 시장 참여도 가능하다.

앞으로 국내 VPP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센서, RTU, 서버를 통한 데이터 수집은 물론 발전·수요 예측을 위한 분석 연산 장치와 자동제어 인프라도 필수적이다. 특히 자연환경 의존성이 큰 재생에너지 특성을 고려하면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AI 기반 기술 고도화가 중요하다. 전력 수요 전망을 반영해 다수의 분산 전원을 조합·운영할 수 있는 운영 역량 축적도 함께 요구된다. 국내 VPP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시장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 글로벌 VPP 사업 현황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VPP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 Next Kraftwerke → 유럽 최대 기업 VPP
- 가정용 배터리 제조기업 Sonnen → 개인 간 P2P 거래 플랫폼 기반 시장 확대 중

**미국**

**분산에너지 자원 관리 수요관리 스마트 기기 연동 등을 위한 VPP 플랫폼 구축이 활발**
- Sunverge Energy 등 VPP 기술 선도
- 캘리포니아州 →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스마트 인버터 도입 등 VPP 활성화 중

**일본**

**수급조정시장 개설 등(2021년 4월) VPP 시장 참여 활성화 중**
- 재생에너지 예측 오차 대응을 위한 3차 조정력 시장에 VPP 참여 허용 등

**호주**

**소매전력 시장 변화에 따라 VPP 도입·운영이 활발하게 진행**
- Ausgrid → 배터리 VPP 실증 사업 등 다양한 VPP 프로젝트 진행 중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 바닷물을 담수로, 새로운 물길의 시작

## 대산임해해수담수화 사업 준공식

**기후위기로 물의 안정성이 곧 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첨단 기술은 바닷물을 자원으로 바꾸고, 그렇게 확보된 물은 산업의 미래를 지킨다. 충남 서산 대산임해산업지역에서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새로운 물길이 시작됐다.**

###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

지난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일원에서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해수담수화 사업(이하 대산임해해수담수화 사업)' 준공식을 열고, 국내 최대 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대산임해해수담수화 사업은 대산임해산업지역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증설 등으로 늘어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해 추진됐다. 서해를 수원으로 삼아 역삼투(RO) 기술을 적용, 하루 10만㎥ 규모의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은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충남 서부권은 반복되는 가뭄과 저수율 급감으로 물 공급 불안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주요 수원인 대호지는 2012년 저수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공장 가동 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번에 준공한 시설은 서산·당진 지역 약 34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정된 취수원에 의존해 온 지역의 물 공급 구조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닷물을 담수화해 강우 의존형 수자원 확보 방식을 보완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물 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든든한 '보험'이 마련된 셈이다.

### 첨단 기술로 완성한 물 인프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시설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저에너지형 역삼투막을 비롯해 에너지 회수 장치, 고효율 수처리 기자재 등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수질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또한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 약 20㎞에 이르는 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물 걱정을 덜고 산업 현장이 물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용수 공급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수담수화를 미래 물관리의 핵심 기술로 보고, 글로벌 선도 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물포럼 등 국제 무대에서 국내 기술을 알리며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은 이러한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운영하는 대표 사례로, 향후 국내 혁신기업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넓혀가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준공은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수담수화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운영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1

##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지난 12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 31개 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과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 변화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기관장 주도로 이뤄진 윤리경영 철학과 이를 뒷받침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청렴내부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실행에 옮겼다.

무엇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부분에서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경영진 주도의 실천 의지가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인사 분야에서 기관장이 스스로 '공정 인사 중재자'가 되어 승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별승진 제도 변화를 주관했다. 또한 '청렴혁신 드라이브 추진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맞춤형 조직문화 코칭 프로그램인 'Bespoke' 운영과 함께 재무 분야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갑질 근절을 위한 'Do & Don't 가이드라인' 시행 등 현장 중심의 부패 유발 요인 해소에 앞장섰다. 이러한 전사적인 노력이 청렴도 상승의 결실로 이어졌다.

02

## '무역센터 수열 도입 기념 수열확산 비전 선포식' 개최

지난 12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센터에서 '무역센터 수열 도입 기념 수열확산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단일 건물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 도입 사례로, 코엑스·트레이드타워·아셈타워에 냉방용 에너지를 공급해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된 수열에너지는 총 7,000RT(냉동톤) 규모로,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을, 겨울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된다. 기존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송전선로 구축이 필요 없고, 도심에서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수열에너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 GBC와 영동대로 GTX 복합환승센터, 세종 국회의사당 등 대규모 공공·복합 건축물에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도수관로를 활용해 건물 간을 연결하는 '수열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검토 중이다.

수열에너지는 화석연료 기반 냉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심형 재생에너지로,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해 대규모 재건축이나 전력 설비 증설 없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03 수도 디지털 기술체험 포털 ‘waterAX’ 플랫폼 오픈

지난 12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 디지털 기술을 온라인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도 디지털 기술체험 포털 ‘waterAX’(http://waterax.wateround.kr)를 새롭게 구축해 오픈했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AI정수장, 정수장 디지털트윈, 관로 디지털트윈, water-NET, 자산관리체계 등 디지털 기반 수도기술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시연이 가능해 국민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오픈한 waterAX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플랫폼 방문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핵심 수도 기술을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형태로 온라인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술별 핵심 기능과 경제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사업기획 단계에서 기술 도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04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물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난 11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 교육원에서 한국환경공단과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물시장 공동 진출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축적해 온 물관리 사업 발굴·기획·운영 역량에, 하수·환경 기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한국환경공단의 역량을 더해 글로벌 발주처의 다양한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내용은 해외 물산업 분야 공동 진출 추진, 국내기업의 해외 물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환경산업 발전과 국외 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적 교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상수도부터 하수도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해외 물시장 개척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국내 물기업의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물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 05 기후에너지환경부·부산시와 AI 상수도 운영기술 협력

지난 12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수도 AX 전환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가 AI 혁신 전략과 연계해 상수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기반 상수도 운영 기술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 간 첫 3자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기반 물관리 정책 지원과 제도 마련, 기술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 구축한 AI 정수장 운영 기술과 스마트 관망 관리(SWNM) 등 AI 기반 상수도 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부산시에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지자체 현장 중심의 AI 물관리 모델 실증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정수장의 실제 운영환경과 수질, 수요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의 상수도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 06 향후 10년 물의 미래를 밝힐 ‘미래 물 기술 20선’ 공개

지난 12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기술 변화가 본격화되는 향후 10년에 대비하기 위해 20대 미래 물 기술을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20대 미래 물 기술은 ‘물 기술 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 혜택을 누리는 밝은 미래(SHINE)’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구성했으며, 안전한 물, 건강한 물, 똑똑한 물, 친환경적인 물, 함께하는 물의 5대 가치로 구조화했다.

‘안전한 물’ 분야는 홍수·가뭄 등 재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된다. ‘건강한 물’ 분야는 과불화화합물(PFAS)처럼 잘 분해되지 않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다룬다. ‘똑똑한 물’ 분야는 AI·로봇·센서 등을 활용해 물 인프라가 스스로 점검하고 운영되는 지능형 관리 기술로 구성됐다. ‘친환경적인 물’ 분야는 수상태양광, 수소 기반 전력 등 물 기반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한다. ‘함께하는 물’ 분야는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유역 계획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물관리 기술을 포함한다.

글. 최행좌 사진. 박갑순

# 서해의 빛을 향해 오르는 사찰 보문사

**바다와 산의 경계가 스며드는 곳, 석모도 낙가산에는 보문사가 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누군가는 단 하나의 소원을 간직한 채 계단을 오른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 빛을 향해 새해의 소망을 하나씩 띄운다.**

## 바위 위에 세워진 해상 관음 성지

보문사는 유서 깊은 사찰로, 산보다 바위에 더 가까운 절이다. 가파른 계단과 바위틈을 따라 이어진 전각들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 층층이 얹혀 있다. 이곳은 신라 선덕여왕 4년(635년)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강화도로 내려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양양 낙산사와 남해 보리암과 함께 국내 3대 해상 관음 성지로 꼽힌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도량이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한 것을 떠올리면, 보문사의 자리는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절 입구에서 경내까지는 꽤 가파른 길이 이어진다. 길지 않지만 등산처럼 숨이 차오르기도 하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다면 매표소에서 셔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부처님과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그 장엄하고 웅장한 기운이 공간을 채운다. 반면 전각 출입문의 꽃무늬 문살은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멋을 더해 안팎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보문사의 또 다른 볼거리는 와불전의 대형 와불이다. 2009년 3월에 조성된 이 와불은 열반에 드는 부처의 누워 있는 모습으로 손의 모양, 불의의 주름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다. 길이 10m에 이르는 거대한 와불 앞에선 누구나 자연스레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와불전 아래에는 각각 다른 표정을 지닌 오백나한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천연동굴을 활용해 만든 석굴사원인 석실도 빼놓을 수 없다. 신라 선덕여왕 4년에 회정대사가 처음 건립하고 조선 순조 12년(1812년)에 다시 고쳐 지은 공간으로, 자연을 품어온 보문사의 긴 시간을 상징한다. 석실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선덕여왕 때 한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린 돌덩이를 꿈에서 본 대로 모셔두었더니 큰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자연이 만든 동굴에 신앙이 깃들어 생겨난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이롭다.

##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곳

보문사에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기도처가 있다. 바로 눈썹바위로 불리는 마애관음좌상이다. 낙가산 중턱 암벽에 새겨져 있으며, 이곳에 닿으려면 400여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숨이 차오를 즈음, 높이 920m, 너비 330m에 달하는 거대한 마애관음좌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자애로운 표정은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줄 듯 너그럽다.

바위 앞에 서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한 가지 소원을 천천히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마애관음좌상의 시선을 따라 내려다보면 보문사 아래로 옹기종기 모인 집들과 석모도 앞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마치 관음보살이 바다를 보살피고 있는 듯한 풍경이다.

'보문사에 오면 눈이 맑아진다'라는 말을 실감이 날 만큼 빛은 잔잔하게 반짝이고, 바람은 마음을 씻어내듯 부드럽다. 해 질 무렵이면 하늘은 금세 붉은빛으로 물들며 서해 최고의 낙조로 불릴 만한 풍경을 만든다.

이곳에서는 일출 또한 장엄하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떠오르는 해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전각 사이를 걷다 보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황금빛 용 조형물이 나타나는데, 용왕을 모신 전각 앞에 자리한 용왕단이다. 붉은 해가 용의 여의주 사이로 떠오르는 순간은 많은 이들이 찾는 일출 포인트다.

아침 바다를 밝히는 고깃배의 불빛도 풍경을 완성한다. 잔잔한 수면 위의 작은 빛들은 서해의 하루를 여는 또 하나의 별처럼 다가온다. 붉은 해, 금빛 용, 고깃배의 불빛까지. 보문사의 일출은 서해의 모든 순간을 품어내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보문사**

- A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 H 09:00~18:00
- F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초등학생 1,000원
- T 032-933-8271~3
- W http://www.bomunsa.me

글. 정호영 이투데이 기자

# 티나강을 비추는 한국의 작은 불빛

정호영 이투데이 기자

서울대병원에서 냉장 보관하는 혈액백이 잦은 정전으로 손상돼 버려진다?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총인구 84만 명 규모의 솔로몬제도에서는 불과 3년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 국립전원병원(NRH)이 보유한 다량의 혈액백이 빈번한 정전으로 인한 냉장고 오작동으로 손상·폐기된 겁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디젤 발전이 국가 전력 97%를 차지하는데 그마저도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kWh당 전기요금이 0.8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6~7배 더 비쌉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솔로몬제도는 2,000달러 남짓입니다. 충전식으로 쓰는 전기요금 부담에 현지인은 휴대전화 충전조차 망설인다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토가 여러 섬으로 분산된 탓에 전력망도 불안정합니다. 그나마 병원, 호텔 등 주요 시설에는 대체발전기가 있어 금세 조명이 켜지지만, 대다수 주민은 솔로몬전력청이 정전을 해결할 때까지 어둠을 감내해야 합니다. 솔로몬제도 정부가 이 나라 최초의 수력발전 댐을 짓는 '티나 프로젝트'를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202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호니아라 티나강 유역에 건설 중인 15MW급 수력발전 시설이 가동하면 수도 호니아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70%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30~4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티나 프로젝트 취재차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호니아라에 사흘간 머무르며 보고 들은 일부입니다. 티나 댐 건설 현장과 사업 배경 등을 주로 취재했습니다만, 가장 강렬하게 남은 기억은 '일상적 정전'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유일한 4성급 호텔에서도, 일반 주택에서도 정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호니아라에서의 마지막 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숙소에서 식사하던 중 여섯 번 연속 정전이 일어났을 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당연한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떠올렸습니다.

햇빛과 바다만큼은 눈부시게 빛나던 솔로몬제도. 이면의 현실은 전후 극히 어려웠던 한국의 과거와 맞닿아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70년대. 우리나라도 소양강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을 지으며 경제 발전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출발은 많이 늦었지만, 솔로몬제도도 한국과 국제기구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머나먼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를 맡은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의 구슬땀은 이 나라의 어둠을 밝혀 줄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지에서 만난 맥키니 덴타나 솔로몬제도 재무부 차관은 티나 수력발전이 연간 경유 1,800만ℓ를 대체할 수 있고, 이는 1,700만 달러 규모의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수력발전 댐 하나가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요. 이번 프로젝트가 솔로몬제도의 본격적인 부흥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티나 프로젝트 계약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티나수력발전유한회사(Tina Hydropower Limited, THL)가 30년간 티나 댐을 운영·관리하며 솔로몬전력청에 전력을 판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어도 2060년까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4명이 현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 솔로몬제도에 있는 프로젝트 실무진은 물론 저도 백발의 노인이 돼 있겠지요. 솔로몬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듯, 국제사회가 '티나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제도의 밤을 밝힌 첫 불빛이 한국의 손끝에서 켜졌다는 사실만큼은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그곳에서 근무하게 될 미래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도 미리 응원을 보냅니다.

글. 최행좌 그림. 추관소

# 영혼을 씻는 강, 세상을 품은 여신

# 강가

**하늘에는 빛을 머금은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고통을 씻어내는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신들의 머리칼을 지나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물줄기, 그것이 바로 갠지스강, '강가(Ganga)'라 불리는 강이다. 이 강은 지금도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거대한 물길로 흐르고 있다.**

##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여신

히말라야의 만년설에서 발원해 인도, 방글라데시까지 이어지는 갠지스강(Ganges River)은 아시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생명의 물길이다.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품어온 이 강은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물줄기였다고 전해진다.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강가(Ganga)는 천상의 궁전을 감싸던 은빛 강물로, 정화의 능력이 탁월했다. 그 아래를 지나기만 해도 마음의 먼지가 사라질 만큼 순수해 그녀의 물길은 신들의 세계를 적시며 끝없는 생명의 기운을 퍼뜨렸다.

이때 인간 세상에서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가라(Sagara) 왕의 6만 아들들이 억울한 음모에 휘말려 죽음을 맞고, 해탈하지 못한 채 지하세계에서 떠돌고 있었다. 왕의 후손 바기라타(Bhagiratha)는 조상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산 정상에서, 강가에서, 심지어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자 창조신 브라흐마(Brahma)는 강가를 지상으로 내려보내 영혼들을 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하늘의 강가가 그대로 떨어진다면, 그 막대한 힘에 지상이 산산조각 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기라타는 다시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파괴와 생성의 신 시바(Shiva)가 나섰다. 그는 떨어지는 강가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겠다고 한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강가가 천둥 같은 물줄기로 떨어지려 하자 시바의 머리칼이 검은 구름처럼 펼쳐져 그 거센 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강가는 그의 머리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실개천처럼 잔잔하게 지상으로 흘러내렸다.

그 순간 하늘의 강은 땅의 강이 되었고, 여신 강가는 인간 곁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바기라타를 따라 산과 들을 지나 그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도착했다. 강가의 물이 그곳에 닿자 6만 명의 영혼은 비로소 속박에서 벗어나 빛으로 떠올랐다. 그렇게 갠지스강이 탄생했다.

## 영원을 잇는 '어머니의 강'

그날 이후 갠지스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 강을 '죄와 고통을 씻는 정화의 강',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영원의 강', 그리고 세상을 품고 돌보는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강가의 물에서 몸과 마음의 먼지를 씻고, 죽은 이들의 재를 맡기며, 이 강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고 믿었다. 강가의 흐름은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와도 같다. 여신 강가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을 조용히 받아내며 계속 흘러가고 있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강가가 지상에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강가 두세라(Ganga Dussehra)' 축제가 열린다.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진행되며, 바라나시와 갠지스강 연안 도시들은 수많은 등불로 밝게 빛난다. 어떤 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 몸을 적시고,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물을 떠 조심스럽게 몸에 바른다. 이는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영혼을 씻고, 새로운 삶의 순환으로 나아간다는 오랜 믿음을 확인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유튜브

**당구 여신 이미래 선수에 한 수 배우기**

뭉쳐서 뭐하니?
우린 K-수포츠 한다!

#K-수포츠 #이미래 선수
#당구

## 블로그

**2035년을 이끌 미래 물 기술 20선**

#2035년 #AI정수장
#디지털트윈 #미래물기술

## X(트위터)

**매일 도시락 싸는 열정이 있어도 문제네**

#직장인점심 #직장인공감

## 페이스북

**2026년의 첫 장면, 전국 일출 명소 추천**

#전국일출명소 #새해
#새해일출 #일출명소

## 인스타그램

**방울이가 연말 만남을 요청한대**

#방울이와 수분이 #연말만남요청서





# 1월호 이벤트 안내


Vol.694


**EVENT 1**

##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1월호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 |
|---|---|
| 참여방법 |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
| 이벤트 경품 | 메가박스 2인 패키지(5명) |
| 접수 마감일 | 1월 20일 |
| 선물 발송일 | 1월 30일 |

참여하기

**EVENT 2**

## 치약을 칫솔에 짠 후에 물을 묻히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루 세 번, 양치할 때마다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치약을 먼저 짠 뒤에 물을 묻혀야 할까? 치약에 들어 있는 성분이 물과 만나면 희석돼 치약을 짠 후에는 물을 묻히지 않는 것이 좋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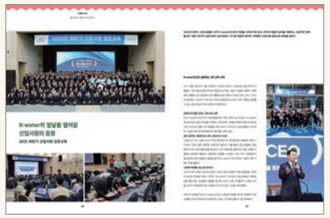
| | |
|---|---|
| STEP 1 |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
| STEP 2 | 1:1채팅방 클릭 |
| STEP 3 | 정답 및 의견<br>(정답 및 의견/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 이벤트 경품 |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
| 접수 마감일 | 1월 25일 |
| 선물 발송일 | 1월 31일 |

참여하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 12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장○익(3944)**

K-water의 새로운 인재들이 조직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이 펼쳐갈 한국수자원공사의 역동적인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파이팅!

**이○이(8333)**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켓이 있었다는 사실을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올겨울에는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더욱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우(7877)**

'안전한 물길 40년, 상생의 미래로'-충주댐 준공 40주년' 기사를 읽으며,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충주댐을 보러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준 충주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렬(0275)**

제가 좋아하는 곡인 <밤하늘의 별을>과 함께 가수 경서 씨의 인터뷰를 만나 반가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곡 발표도 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최○정(8811)**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를 흥미롭게 감상했는데, 폴리네시아 신화 속 영웅 마우이와 연결된 이야기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우이를 둘러싼 신화 이야기도 함께 소개돼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이벤트 당첨자 발표

### #방울이 옷 입히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방울이 캘린더 5명**

김○환(2046)
강○별(0940)
김○혜(4353)
권○근(3719)
정○복(1380)

※1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 #독자 만족도조사

**이벤트 경품**
**배달의민족 3명**

김○경(7241)
김○미(1570)
허○윤(5084)

**이벤트 경품**
**방울이 스페셜 굿즈 5명**

강○규(7604)
심○익(4202)
오○환(0410)
이○희(9601)
이○라(6225)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50명**

강○경(8033)
강○라(2638)
강○준(1776)
권○길(3416)
김○경(8033)
김○근(9485)
김○금(6385)
김○록(2973)
김○민(3021)
김○영(0958)
김○예(4106)
김○원(7888)
김○인(8687)
김○정(0203)
김○주(8565)
김○희(4278)
도○찬(3229)
박○숙(0748)
박○은(4621)
박○현(5655)
배○선(7526)
서○복(5736)
서○진(3817)
송○영(8736)
오○열(0804)
오○일(1787)
오○화(7811)
이○만(7004)
이○명(3600)
이○안(0427)
이○호(0012)
이○화(3212)
이○훈(3867)
장○영(2836)
장○우(2870)
정○영(1741)
정○영(9692)
조○봉(5604)
조○순(5122)
지○환(8070)
최○덕(6515)
최○재(7422)
최○현(1139)
하○수(7292)
함○규(1273)
허○(6430)
현○문(5827)
홍○석(5200)
황○원(3695)
황○화(5259)



# 방울이 옷 입히기

**여러분의 취향대로 방울이를 꾸며보세요!**

방울이의 변신은 무죄!
멋있게 변신한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방울이 카드지갑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1월 20일
**선물 발송** 1월 30일

응모하기

**경품**
방울이 카드지갑
(5명)

웹진 바로가기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최애 게시글은?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블로그 댓글달기 이벤트

한국수자원공사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블로그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전체 게시글 중 최애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블로그 바로가기

**이벤트 참여하기**

**참여 방법**

① 게시글 중 최애 게시글에 댓글 남기기
② 댓글 인증샷 찍기
③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교촌치킨 허니콤보+콜라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50명)

**접수 마감일**

1월 25일

**당첨자 발표**

2월 중 블로그에서 발표 예정